

4·24 재보선... '거물들의 귀환' 이뤄지나

안철수·김무성·이완구 여의도 입성 시선 집중

원내 진입시 與 당권판도·野 정계개편 '후폭풍'

4·24 재·보선의 최대 관심거리는 무소속 안철수, 새누리당 김무성·이완구 후보 등 거물급 후보의 승패다. 안 후보는 원내 진입시 야권 발 정계 개편에 불을 댕길 것으로 예상되며 김·이 후보의 원내 입성은 여권의 역학구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전 실시된 KBS-미디어리서치의 지난 15~16

일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700명)에서 노원병의 경우 안 후보는 44.7%의 지지율을 얻어 29.6%를 얻은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15.1%포인트 앞섰다.

부산 영도에서는 김무성 후보가 51.6%의 지지율로, 15.5%를 얻은 민주당통합 김비오 후보를 여유있게 앞섰다. 부여·정양에서는 이완구 후보가 65.3%의 지지율로, 민주당 황인석(11.4%)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이 차이가 선거 끝까지 이어진다면 여야 모두 커다란 지형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장외주자였던 안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면 야권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당장 새 지도부를 뽑는 5·4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당권 경쟁을 벌이는 강기정·이용섭 후보 등 범주류와 김한길 후보로 대변되는 비주류는 안 후보와의 관계설정을 놓고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안 후보는 ▲신당 창당 ▲민주당 압당 ▲무소속 유지 등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며 민주당의 5·4 전당 결과는 이 선택을 좌우하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민주당이 누가 당권을 쥐더라도 새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겪게 될 경우 야권의 분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철수 신당론'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자연스레 10여 곳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가 예상되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야권 새관짜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이완구 후보의 원내 진입도 여권의 세력구도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선 실무를 지휘했던 김 후보는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고 '세중시 정국'에서 총남지사 직에서 자진사퇴한 이후로는 충청권 맹주를 자처하며 '포스트 JP(김종필)'를 꿈꾸고 있다. 물론 이들은 당분간 낮은 자세를 취하면서 정치적 행보에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들의 정치적 상징성과 당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움직이기에 따라 얼마든지 여권 내부가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23일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를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무소속 안 후보와 새누리당 허 후보가 맞붙은 노원병 보궐선거 열기가 막판까지 가장 달아올랐다.

허 후보는 노원병에서의 열세를 뒤집기 위해 전날부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자정까지 48시간 선거운동을 펼쳤다.

안 후보는 오전 6시 30분께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이날 세 차례 집중 유세를 벌였다. 그는 이날 저녁 마무리 유세를 '새정치 페스티벌'로 정하고 새정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민주당, 박 대통령 사과 요구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불법 관권선거의 부활', '국기문란 중대범죄'로 규정하며 "경찰과 국정원은 당장 국민에 사죄하고 사건 진상을 낱낱이 실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에 앞서 22일 광주시당 대의원대회에서 "권은희 과장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사실이 그냥 묻힐 수도 있었다"며 "당력을 총동원해서 '광주의 딸'인 권 과장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불법대선개입

에 이은 수사 개입의 실체를 파헤치고 이명박 정권이 망가뜨린 국정원과 경찰의 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런 국기문란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대처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이석현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불법행위의 수혜자"라면서 "국민 앞에 사과를 물은다고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나아가 경찰수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원세훈에 대해선 직인들의 선거개입을 직접 지시했다며 구속수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고, 안행위에서는 경찰 축소수사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대 코앞서 터진 '대선자금 부실집행' 논란

친노 '허위날조' 비주류 '없는 사실 주장했잖나' 폭발

5·4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통합당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혁신과 화합을 도모하기보다는 대선 패배 책임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 패배 이후, 잦은 충돌을 보였던 민주당통합당 주류와 비주류는 대선자금 부실집행을 놓고 폭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비용 검증 보고서에서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전 후보의 고교 선배와 친노 인사 등 선대위 내 일부 인사들이 광고 대행업체 선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유세차와 인쇄물, 접과 등과 관련한 선거운동 자금 지출에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당장 친노 그룹은 "한쪽의 일방적 진술에 토대한 허위날조", "전대용으로 급조된 음해성 모함"이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검증단장이 비주류의 문병호 최고위원이라는 점을 들어 "전대 국면에서 주류를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비주류 측에서는 "없는 사실을 적시해줬잖나"며 "대선 과정에서 친노 핵심 그룹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당 정체성 재정립을 위한 '강령 및 정책' 개정 과정에서도 노선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중도층 이탈이 대선 패배 원인이었다는 인식에 기댄 비주류가 '우클릭'으로 상징되는 중도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반면, 친노, 주류, 486 등 범주류는 진보 정체성 유지를 내세워 이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열린우리당 시절 내내 시끄러웠던 '난닝구(실용)대 백바지(개혁)' 논쟁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전당대회가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민주당통합당이 주류로 비주류로 나뉘어 격렬한 국지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좀처럼 수권정당으로서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투표참여·바른선택 해주세요” 4·24 재보궐선거 하루 앞둔 23일 오후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후보들이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 광장에서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주최로 열린 ‘투표참여·바른선택 전국캠페인’에 참석해 나란히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부터 나기환 무소속, 안철수 무소속, 허준영 새누리당, 정태홍 통합진보당, 김지선 진보정의당 후보. /연합뉴스

박준영 지사, 쓰촨성 지진 위로 전문 시진핑 주석·웨이훙 성장에

박준영 전남지사가 대지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과 웨이훙 쓰촨성 성장에게 각각 위로 전문을 보냈다.

박 지사는 위로전문에서 “갑작스런 재해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

가 발생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 국민에게 전남도민을 대신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복구가 이뤄져 국민들의 생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쓰촨성은 지난 2004년 4월 전남도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국제교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달에도 전남도 국제교류 실무단이 쓰촨성을 방문했다. /오광욱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시·구의원 연구모임-미 대사관 간담회

“한반도 평화·남북 화해 한·미 협의회 구성하자”

‘남북화해와 협력 활성화 시·구의원 연구모임’(대표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23일 오후 광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한 미 대사관 브렌트 바이어스 공보참사관과 이지훈 선임전문위원, 남북화해와 협력 활성화 연구모임 시·구의원, 비상시국회의 대표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모임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바라보는 광주·전남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화에 미국이 적극 나서줄 것 ▲대화를 통해 정전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화해와 협력 활성화를 염원하는 시·구원과 시민사

회, 주한 미 대사관이 함께 하는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대사관 브렌트 바이어스 공보참사관은 “미국은 광주가 염원하고 있는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열망을 함께 한다”며 “남북한의 신뢰회복과 평화를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받고 성급 대사를 비롯한 워싱턴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문상필 시의원은 “고조되는 전쟁분위기로 인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문을 닫아 버려 국민은 극도로 불안해 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전안내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한약·국산·수입한약재 한방에 대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약재 목목 독활 분양

이전약도

광주한약도매시장(주) 정산한약방 광주결혼문화원

금호아파트, 서방사거리, 계림사거리 버스정류소 54, 39, 87, 160, 419

신장입구, 계림초등학교, 호남직업전문학교, 홈플러스, 광주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1동 553-14 062)223-3399 / 223-6664

망치로 부셔먹는 독일전통과자

Schnee Pang(슈니팡) & 버블팡(버블음료)

3호점 슈니팡&버블팡 메가박스 광주점 4월 5일(금) 14시

파레스 호텔 (구)련던약국사거리 민속촌 메가박스 개업기념 슈니팡 3개 구매시 영화관(2중) 버블팡음료 1잔 무료증정 무진주

4호점 순천 연향점 4월 20일(토) 14시

5호점 광주 전남대점 4월 26일 8호점 광주 봉선점 4월 26일 6호점 전남 함평점 4월 26일 9호점 광주 상무점 5월 3일 7호점 광주 문흥점 4월 26일 10호점 광주 수완점 5월 3일

줄을 서서 사먹는 슈니팡&버블팡 광주·전남 가맹점 모집 062)523-1001, 010-5603-4709

www.semenergy.co.kr / greenpw.co.kr 태양광 R.P.S사업부

“햇빛 재테크” 소용량(10~30kw)태양광 발전사업 40kw 이상 대용량 설치 가능

희망찬 노후를 설계하세요!

태양광 RPS발전사업이란? 사업주께서 건물(옥상) 또는 대지에 발전사업 설비용량에 따른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시공하여 생산된 신재생에너지(전기)를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여 판매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사업자 수익금

(은행 예치 대비 태양광 설치 시 약4.5배 이상 기대)

년 480만(예상수익)	1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400,000원 예상
년 960만(예상수익)	2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800,000원 예상
년 1440만(예상수익)	30kw 소용량 발전사업 월 수익 약 1,200,000원 예상

※인증서 판매가격:입찰을통하여 결정

태양광주택발전(주택용) 설치후 효과

자부담 550 ~680만원

기존 전기료의 약 80% 절감효과

설치비용은 1년거치 5년상환제로 결제가능(농협특화사업) 3개월 무이자가능(cnh할부)

※ 3kw용량의 발전설치시 월평균 약300~400kw의 전력이 생산가능하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욱 절감 됩니다.

(주)셈에너지 그린파워

광주 총판 TEL.1577-8905 019-624-2371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49-3 1F